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5면)



송파구의회는 지난 14일 석촌고분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손병화 의장(오른쪽 첫 번째)이 현장 간담회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

구의회, 석촌고분역 도심복합개발 현장 간담회

송파구의회(손병화 의장)는 지난 14일 오전 석촌고분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

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성공적인 도심복합개발 추진 방향을 논

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석촌고분역 일대는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약 2,900세대 규모의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운영위 측은 "일부 구역의 주민 동의율이 60%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 방식을 도입하고 향후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손병화 의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운영위원들을 격려하며 "무엇보다 주민과의 신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탁 방식이나 재산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투명하게 해소하고, 외부 투기 세력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정확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